

주식전략

Hello, 외국인

매크로 지표 변동성 완화

2025년 국내 증시 시작은 나쁘지 않다.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금리와 환율 등 매크로 지표들의 변동성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편적 관세 우려도 완화됐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8%에서 4.6%, 달러 인덱스는 고점 대비 -1.5%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은 1,430원 중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현재 수준에서 미국채 금리와 달러화의 추가 상승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트럼프 정책 경계심리가 남아있지만 경기 모멘텀과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 추세를 감안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국내 증시 매력이 높아지는 국면

국내 기업들의 이익모멘텀 둔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4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실적 하향 조정 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실적 컨센서스는 8월 말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하향 조정되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도 1분기/2분기와 3분기/4분기 차이가 극명했다. 올해도 이러한 계절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영업이익 증가율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영향으로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지만 이를 제외하면 상반기와 하반기 증가율 차이는 크지 않다. 또한, 매출 증가율 둔화에도 마진 개선 여건은 양호하다. 물가(↓), 환율(↑), 금리(↓) 방향성이 기업 마진에 우호적이다. 상반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실적 관점에서 국내 증시 매력은 상반기가 높다고 판단된다.

외국인 수급 개선이 기대되는 환경

외국인 수급의 개선을 전망한다. 이유는 1)원화 환율 안정화와 2)공매도 재개다. 미국과의 금리차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원화 가치의 빠른 반등은 어렵겠지만 이미 부정적인 요인들은 충분히 반영된 수준으로 판단한다. 공매도 금지는 가격 효율성 저하 및 거래 회전율의 하락 요인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 원인 중 하나다. 공매도 재개가 이뤄진다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국내 증시 수급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거래 비중 하락과 외국인의 거래 비중 상승이다. 외국인 수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아졌다. 그러나 단순히 외국인 수급을 따라 사는 전략의 성과는 부진했다. 펀더멘탈을 함께 고려해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연초 이후 외국인 수급 모멘텀이 긍정적인 업종 중에서 주가 민감도가 높고, 펀더멘탈이 양호한 업종은 조선, 방산, 반도체다. 또한, 반도체는 외국인 수급 여력이 100%에 가까워 수급 부담이 적다고 판단된다(관련 기업은 본문 16p 표1 참조).

Hello,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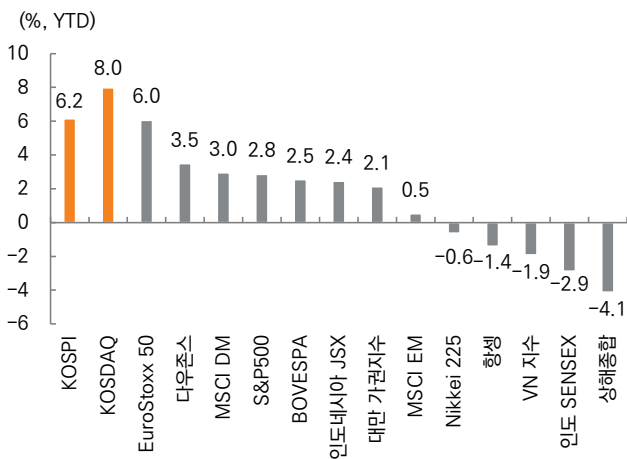
매크로 지표 변동성 완화

금리 하락과 달러 강세 둔화

2025년 시작이 나쁘지 않다. 코스피, 코스닥은 연초 이후 6%, 8% 상승해 글로벌 증시에서 양호한 성과를 기록 중이다.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에도 금리, 환율 변동성 둔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초 고점 4.8%에서 4.6% 수준으로, 달러 인덱스는 고점 대비 -1.5%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도 1,430원 중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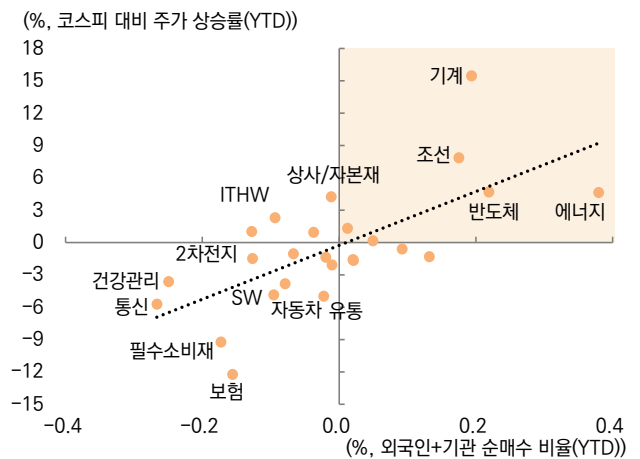
이익모멘텀이 약한 4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 수급모멘텀의 설명력이 높아졌다. 연초 이후 코스피 대비 성과가 긍정적인 업종의 특징은 외국인, 기관 순매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기계, 조선, 방산, 반도체, 에너지). 특히, 외국인의 수급 영향력이 커지면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날과 순매도한 날 국내 증시의 성과 차이가 뚜렷했다.

그림 1. 연초 이후 주요국 증시 주가 상승률



주: 2025년 1월 22일(수)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외국인, 기관 수급에 민감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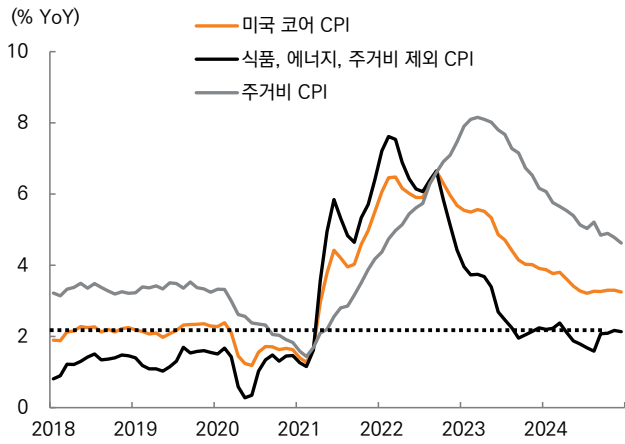


주: 2025년 1월 22일(수) 종가 기준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수급은 금리, 환율 등 매크로 지표 방향성에 민감하다. 지난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인하 예상 횟수를 축소했을 당시나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은 약화됐다. 달러-원 환율 변동성 확대도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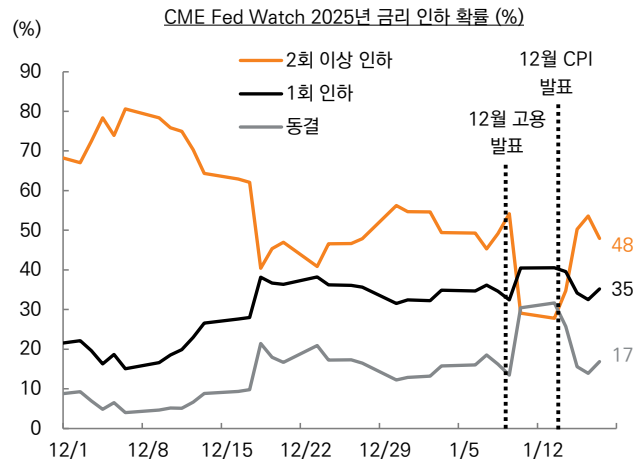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미국채 금리와 달러화의 추가 상승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미국 경기 모멘텀은 대체로 약화된 상황이다. 트럼프 정책 경계심리는 지속될 수 있겠지만 소비 증가세 둔화와 주거비 안정화 추세는 유효하다. 12월 CPI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Fed Watch 기준 2025년 미국 기준금리 2회 이상 인하 확률도 48% 수준으로 상승했다(그림3,4 참조).

그림 3. 미국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 흐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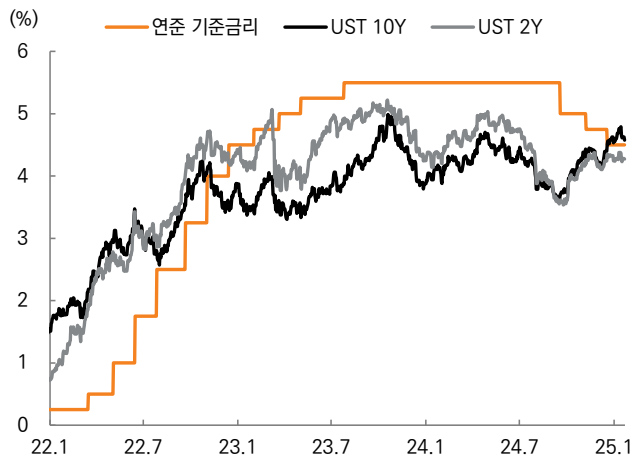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올해 2회 이상 금리 인하 확률 48% 수준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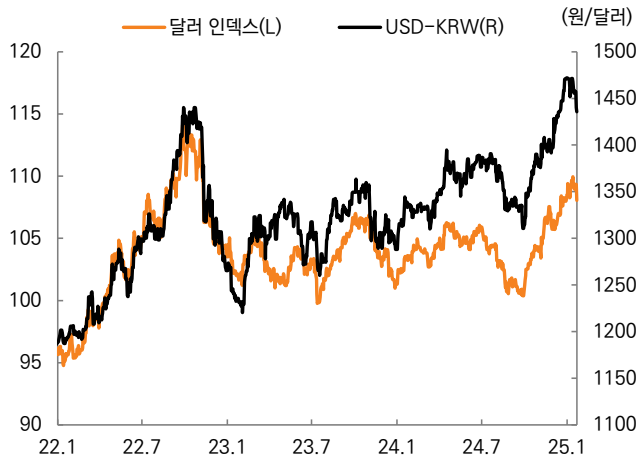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미국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달러인덱스와 달러-원 환율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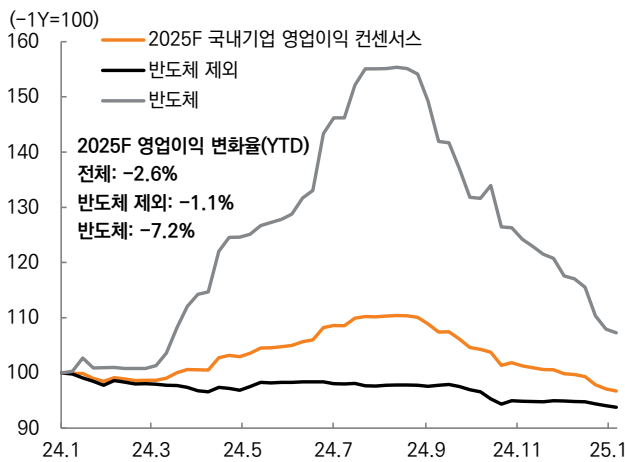
국내 증시 매력이 높아지는 국면

기업 마진 개선 여건은 양호

국내 기업들의 이익모멘텀 둔화가 진행 중이다. 올해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연초 이후 -2.6% 하향 조정됐다. 과거 5년 평균 4분기 어닝쇼크 비율 -22%를 감안하면, 4Q24 실적 시즌까지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5% 추가 하향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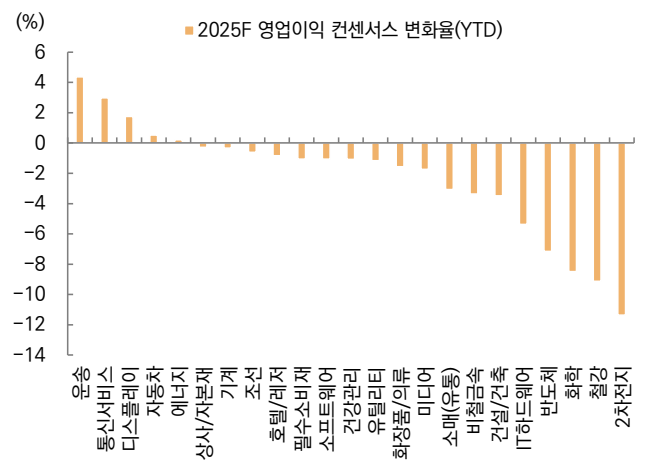
업종별로 보면, 운송, 통신, 디스플레이, 자동차의 실적 변화가 양호하다. 반면, 2차전지, 철강, 화학, 반도체, ITHW, 건설, 비철금속, 유통 등 경기민감주와 내수주 모두 실적 하향 조정 폭이 큰 모습이다(그림8 참조).

그림 7. 2025년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흐름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업종별 2025년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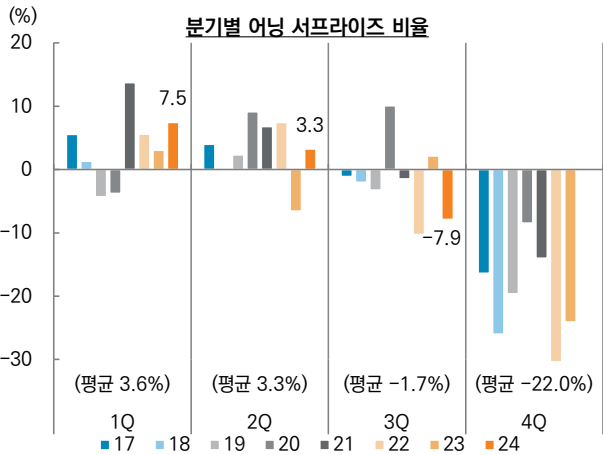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4분기 실적 시즌 이후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 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실적 컨센서스 변화의 계절성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2월 말~8월 말 실적 하향 조정 폭은 평균 -1.4% 수준을 기록한 반면, 8월 말~이듬해 2월 말까지 하향 조정 폭은 -5.5% 수준이었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컨센서스 대비 실적치)도 1분기/2분기와 3분기/4분기 차이가 극명했다. 올해 이러한 계절성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그림9,10 참조).

분기별 실적 증가율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 영향으로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지만(삼성전자 2Q25F -20%YoY) 이를 제외하면 상반기, 하반기 이익증가율의 차이는 크지 않다. 따라서 상반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충족시킨다면 주가는 상반기에 유리할 수 있다(그림11,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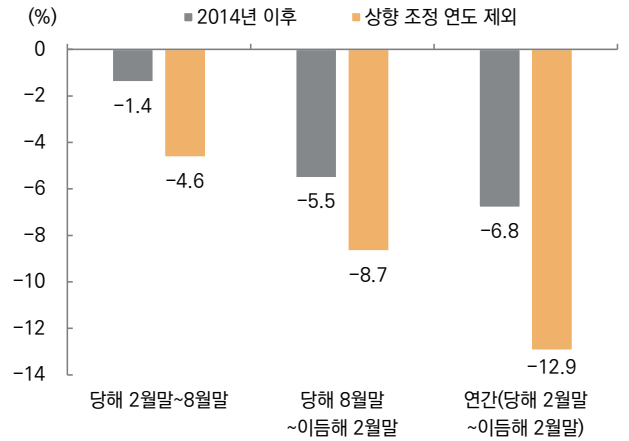
매출 증가율 둔화에도 마진 개선 여건은 양호한 환경이다. 물가(↓), 환율(↑), 금리(↓) 방향성은 기업 마진에 우호적이다. 또한, 매출 둔화되더라도 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들의 마진은 개선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원가 증가율의 차이가 5개 분기 연속 (+)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그림13,14 참조).

그림 9. 4분기 실적은 부진이 당연. 주가 영향력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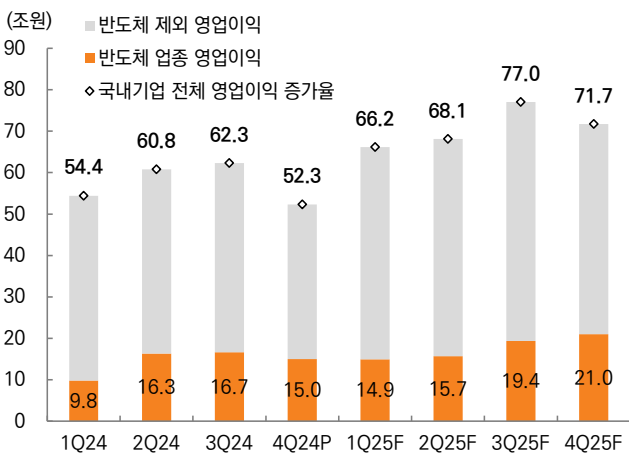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그러나 상반기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 양호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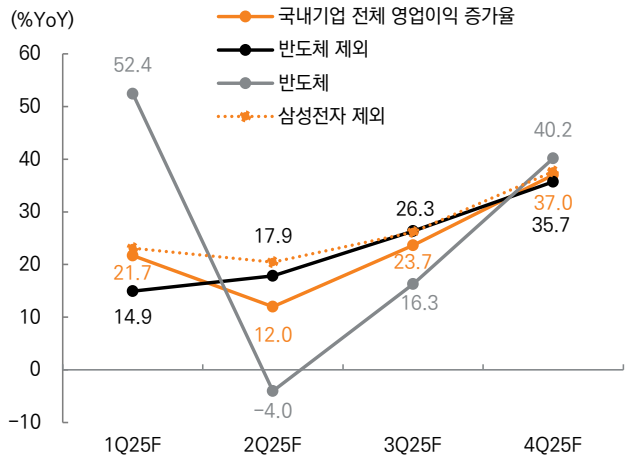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국내 기업 분기별 영업이익: 1Q25 < 2Q25 < 3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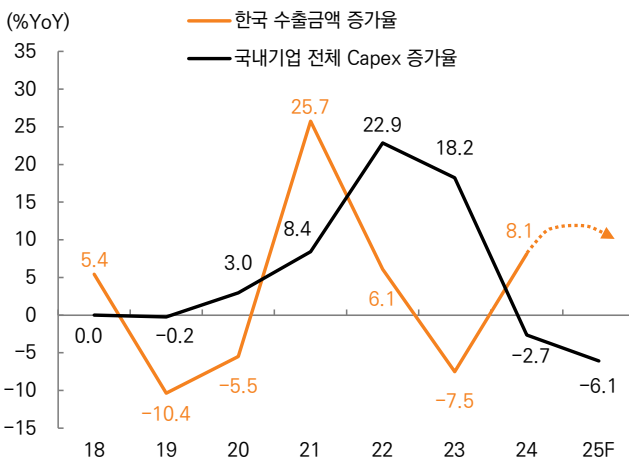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실적 증가율은 하반기가 높지만 주가는 상반기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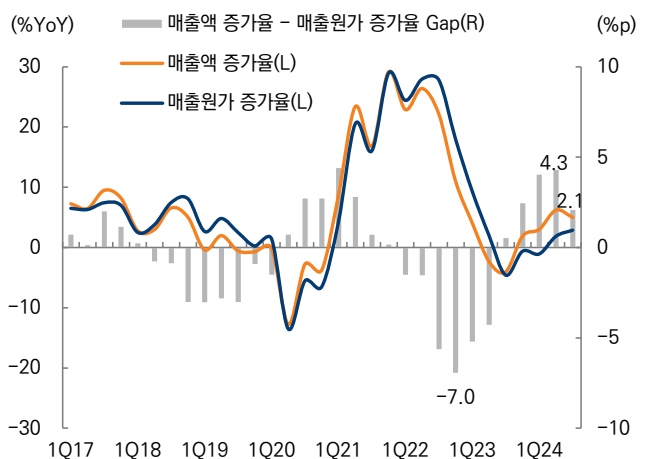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매출 둔화 가능성은 높지만



자료: Bloomberg,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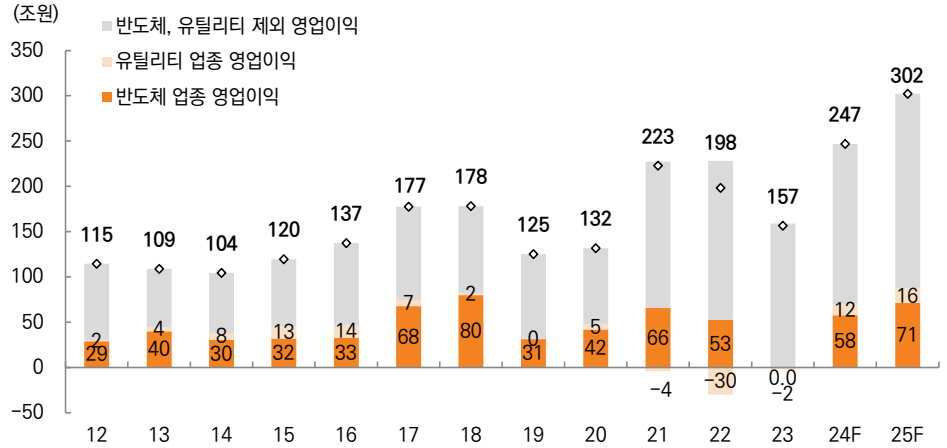
그림 14. 마진 개선 여건은 양호



자료: Bloomberg,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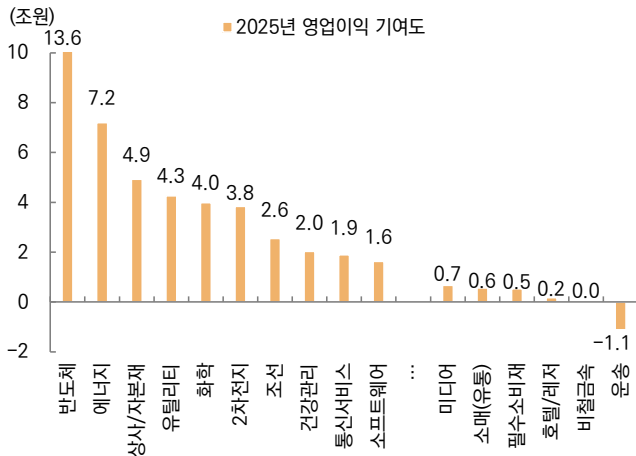
현재 2025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02조원으로 전년 대비 +22%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 업종은 58조원→71조원(+24%YoY), 반도체를 제외하면 189조원→231조원(+22%YoY) 수준이다. 반도체, 에너지, 유틸리티, 상사/자본재, 화학, 2차전지, 조선의 이익 기여도가 높다. 절대적인 컨센서스 값은 여전히 높아보이지만(당사는 260~270조원 전망) 앞서 논의한 대로 실적 하향 조정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림 15. 국내 기업 연도별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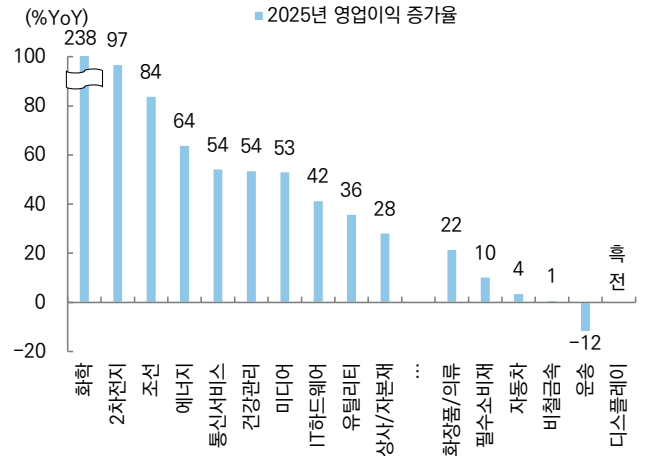
주: 컨센서스 데이터가 존재하는 414개 기업 합산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2025년 영업이익 기여도 상위/하위 업종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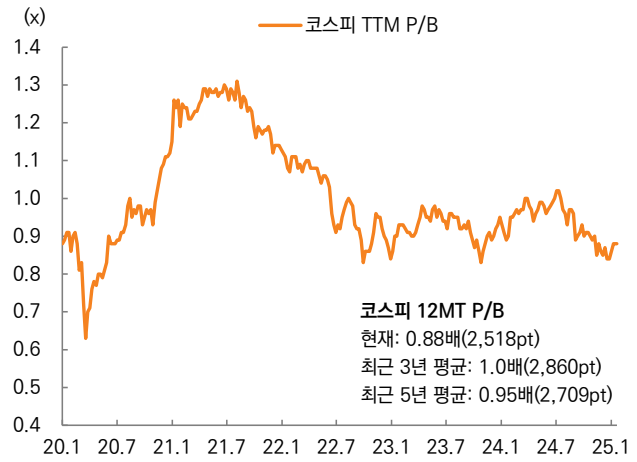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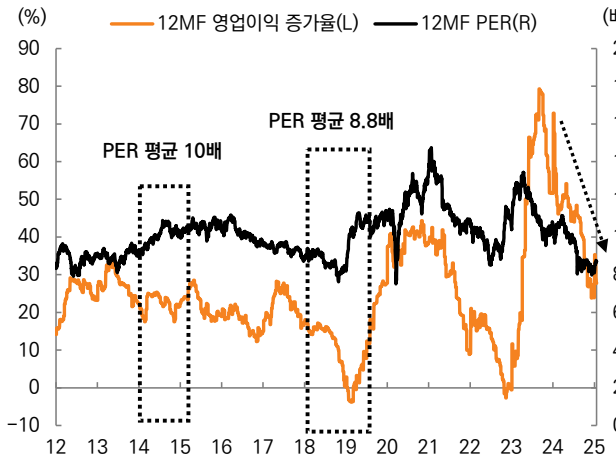
그림 17. 2025년 영업이익 증가율 상위/하위 업종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1. KOSPI 12개월 선행 PER, EPS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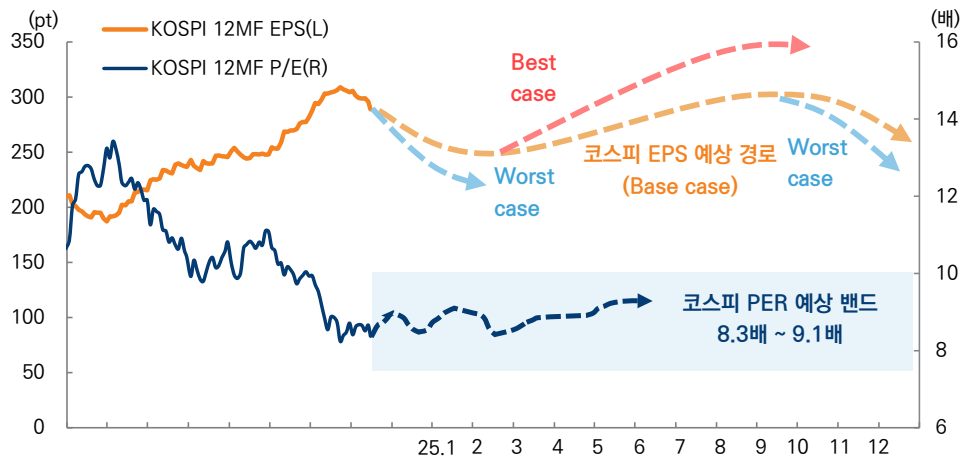
그림 22. KOSPI 12개월 후행 PBR 추이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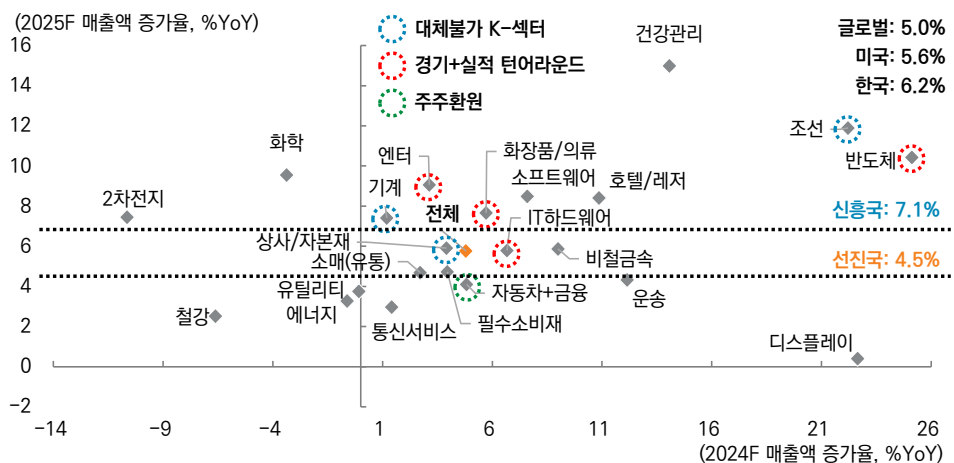
주: 2025년 1월 21일(화) 종가 기준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3. (연간전망) 2025년 KOSPI 예상 경로



주: 컨센서스 기준의 상단, 하단은 각각 2,850pt, 2,350pt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4. (연간전망) 2025년 선호 업종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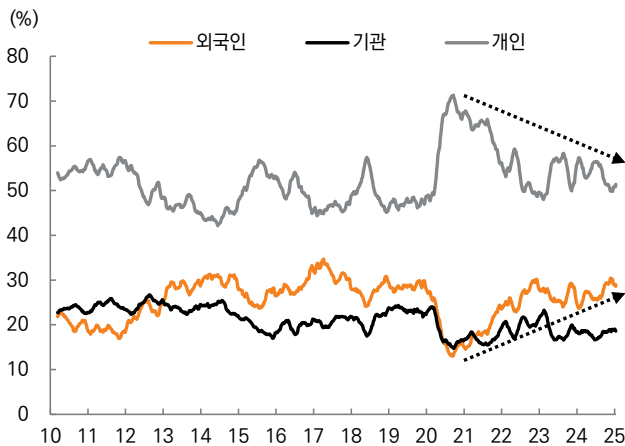
외국인 수급 개선이 기대되는 환경

환율 안정화와 공매도 재개

최근 국내 증시 수급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 하락과 외국인의 거래대금 비중 상승이다. 코스피 내에서 개인의 거래비중은 2020년 하반기에는 71%를 기록한 이후 51% 수준까지 하락한 반면, 외국인의 거래비중은 13%에서 29%까지 상승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 거래비중이 높지만 방향성은 코스피와 유사하다(그림25~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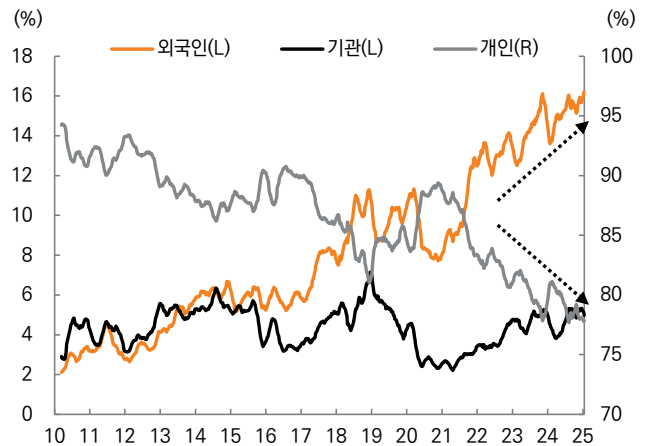
외국인의 수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높다. 수급 영향력은 주가 상승률과 주체별 순매수 비율의 상관계수로 판단할 수 있는데 과거 10년간 코스피 주가 상승률과 외국인 순매수 비율의 상관계수는 +0.5이다. 최근 3년, 1년 각각 +0.7, +0.8로 상승했다. 기관 순매수는 주가 상승률과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외국인은 꾸준히 (+) 값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개인보다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28~31 참조).

그림 25. KOSPI 거래대금 비중 추이(12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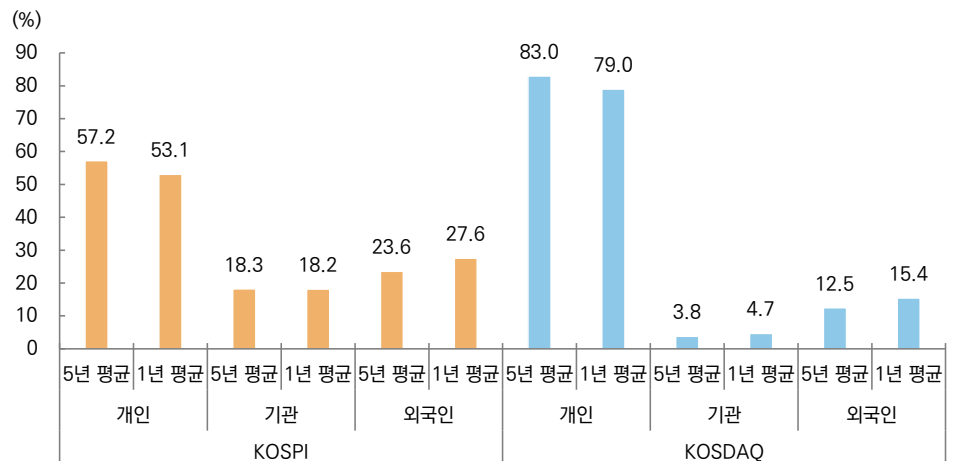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6. KOSDAQ 거래대금 비중 추이(12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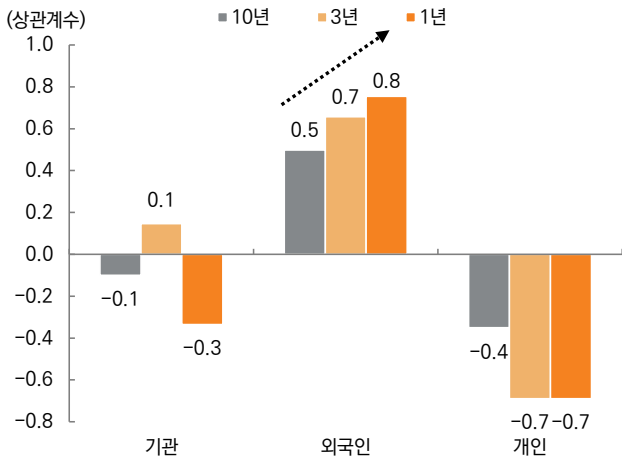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7. 코스피, 코스닥 수급 주체별 거래대금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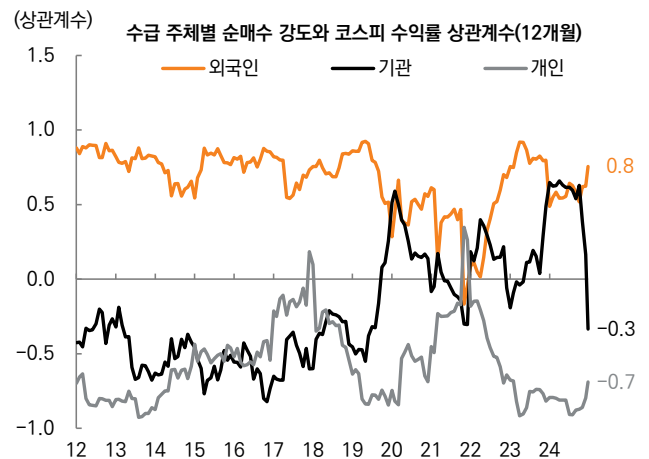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8. 수급 주체별 코스피 수익률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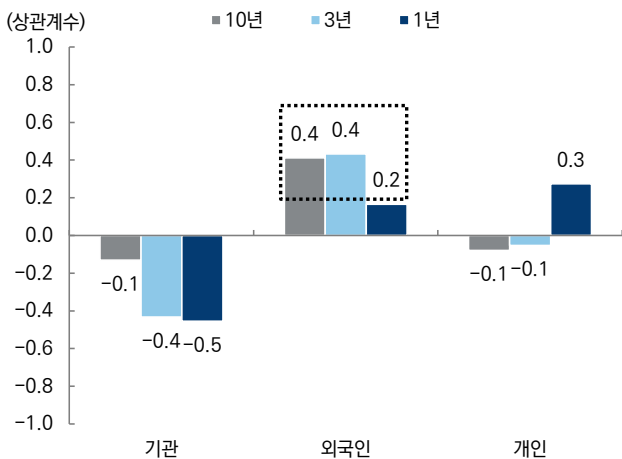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9. 기관/외국인 순매수 강도와 코스피 수익률 상관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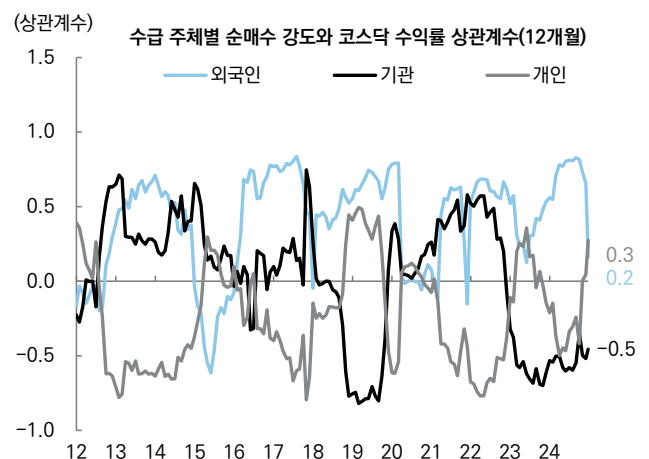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0. 수급 주체별 코스닥 수익률 상관계수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1. 기관/외국인 순매수 강도와 코스닥 수익률 상관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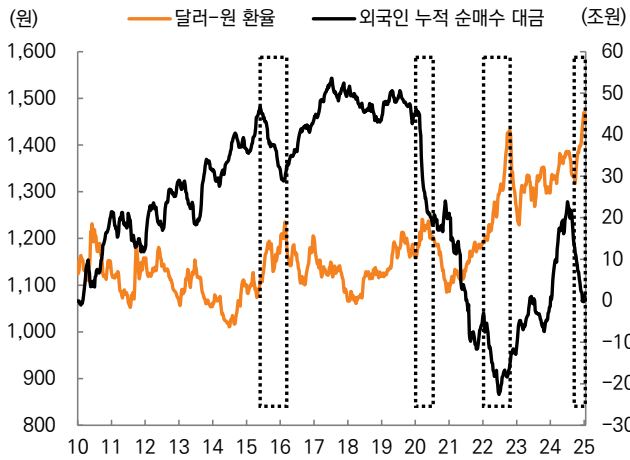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증시 내 외국인 수급의 개선을 전망한다. 이유는 1)원화 환율 안정화와 2)공매도 재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국인 순매도 확대는 반도체 업종 중심의 실적 둔화 원인이 있었지만 원화 약세 영향이 컸다. 과거에도 달러-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외국인 순매도가 확대됐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사는 현재 수준에서 원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미국과의 금리차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원화 가치의 빠른 반등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이미 부정적인 요인들은 충분히 반영된 수준이다. 외환보유액이나 경상수지 흑자 기조로 외화 관련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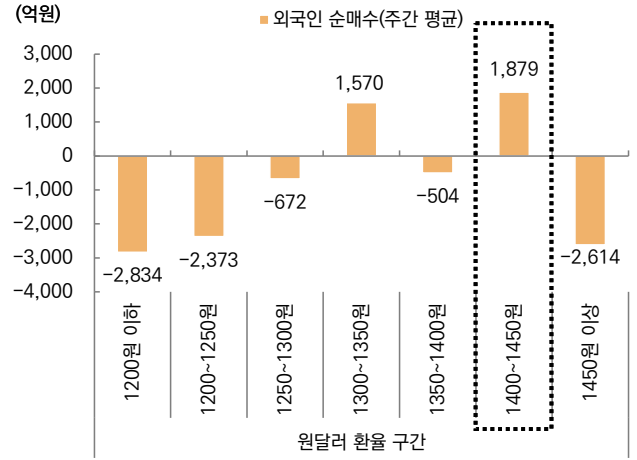
한편,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환율 수준에서 기준은 1,450원이다. <그림 33>에서 달러-원 환율 구간별 외국인 순매수 금액 추이를 보면, 1,450원 이상에서는 주간 평균 -2,60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1,400~1,450원 구간에서는 순매수로 전환했다(주간 평균 1,880억원).

그림 32. 달러-원 환율과 외국인 누적 순매수 대금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3. 달러-원 환율 구간별 외국인 순매수(2020.6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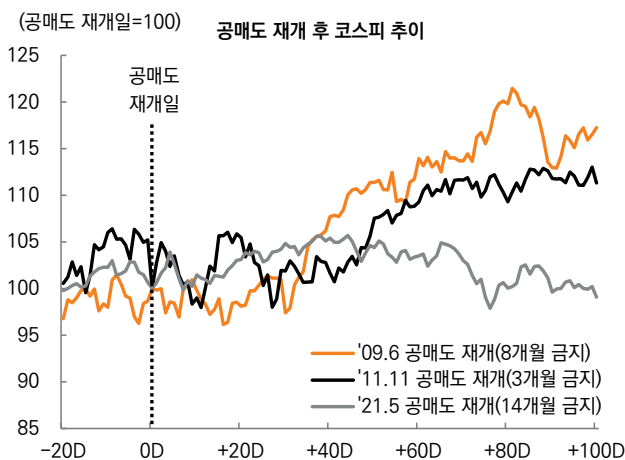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매도 재개가 이뤄진다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 자금 이탈의 원인 중 하나다(공매도 거래금액의 약 70%를 외국인이 차지). 자본시장연구원의 실증분석에 따르면(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2023.2) 공매도 전면금지는 가격효율성 저하 및 주가 변동성과 극단적인 수익률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거래 회전율 하락으로 시장거래를 위축시킨다.

일각에서 공매도 재개에 따른 주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공매도 재개 후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외국인 자금 흐름도 공매도 재개 이슈보다는 당시 매크로 환경과 펀더멘탈에 영향을 받았다(그림34,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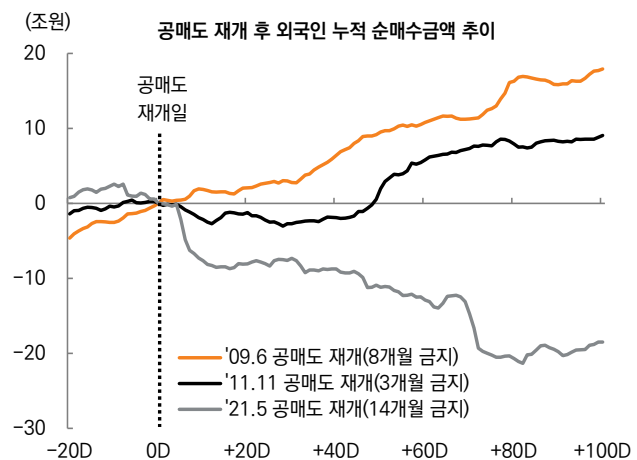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도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다. <그림 37>을 보면, 과거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시기에는 외국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가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는 다시 높아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 과거 공매도 재개 후 코스피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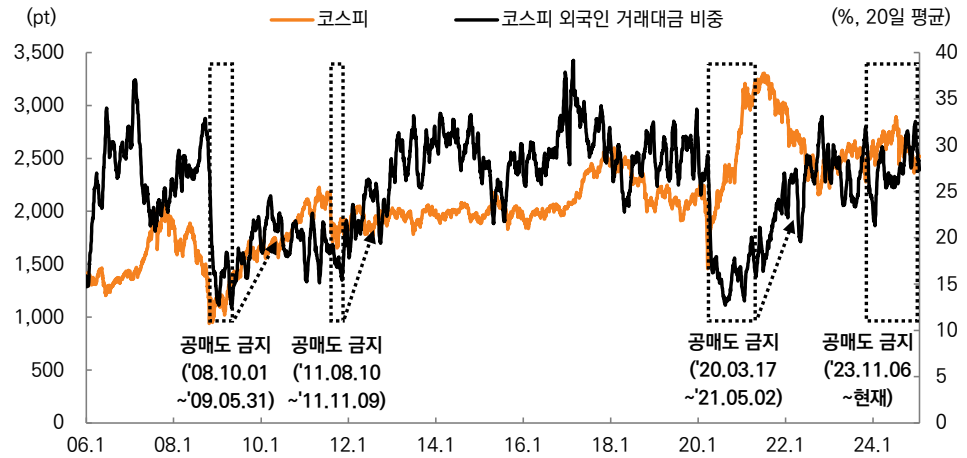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5. 과거 공매도 재개 후 외국인 순매수 흐름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6. 코스피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 추이: 공매도 재개 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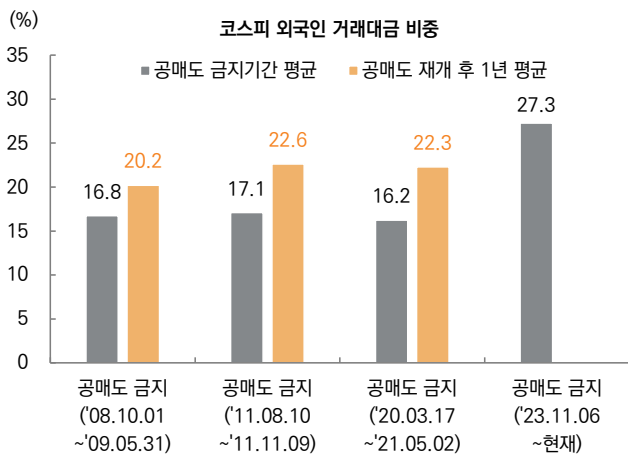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과거 사례를 통해 공매도 재개 후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의 공매도 유입 가능 금액을 추정해볼 수 있다. 2020년 3월~2021년 5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코스피 공매도 잔고금액은 약 9~10조원에서 4.6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공매도 잔고 비율: 0.78%→0.25%). 코스닥은 3~4조원에서 1.5조원까지 감소했고, 잔고 비율은 0.68%에서 0.28%로 하락했다. 공매도 재개 후 코스피,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금액이 직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약 6~8개월 소요됐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공매도 잔고는 3.7조원, 1.8조원으로 공매도 금지 전 수준 대비 각각 8.1조원, 4.2조원 감소했다. 정상화 기간을 6~8개월로 가정하면 공매도 잔고의 일평균 증가 규모는 코스피 320억원~440억원, 코스닥은 160억원~230억원 수준이다.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을 감안하면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림 37. 공매도 재개 후 외국인 거래 비중 ↑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8. 공매도 잔고 정상화는 6~8개월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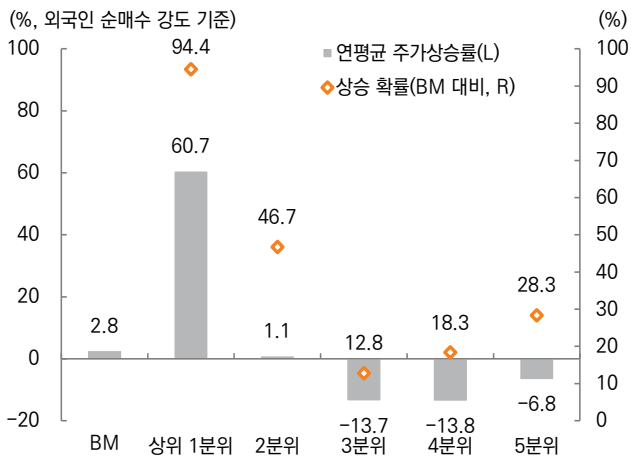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따라사기(No), 따라잡기(Yes)

이익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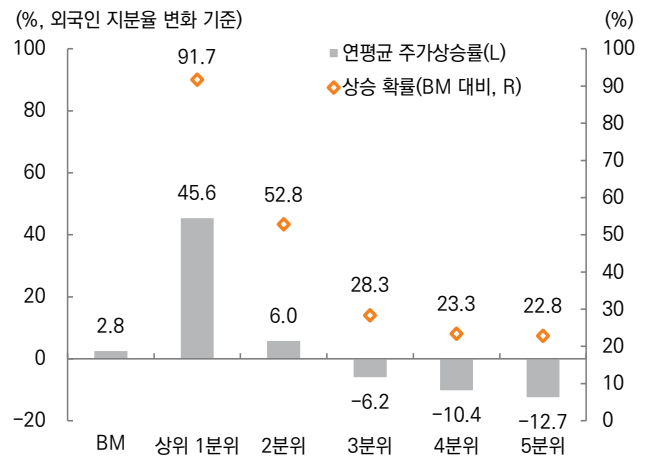
과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기업들의 주가는 긍정적이었다. 2010년 이후 매월 말 외국인 순매수 비율이 높은 상위 20% 기업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60%를 기록했다. 벤치마크 대비 상승확률은 95%다. 반면, 외국인 순매수 비율이 낮은 기업들의 성과는 부정적이었다(그림39,40 참조).

그림 39. 외국인 순매수 강도 기준 주가 상승률과 상승확률



주1: 외국인순매수 강도(1M) 기준 동일가중 포트폴리오(T시점), T시점의 1개월 수익률
 주2: 분석 기간은 2010년 이후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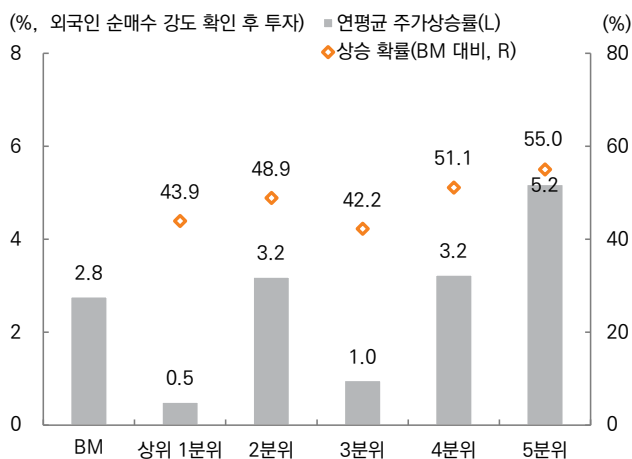
그림 40. 외국인 지분율 변화 기준 주가 상승률과 상승확률



주1: 외국인지분율 변화(1M) 기준 동일가중 포트폴리오(T시점), T시점의 1개월 수익률
 주2: 분석 기간은 2010년 이후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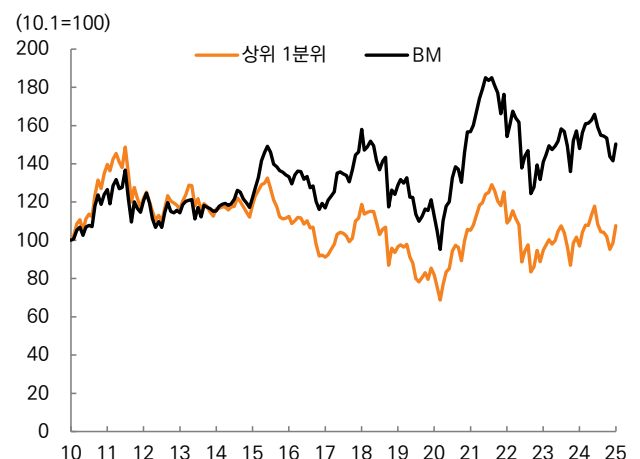
그러나 외국인 순매수 비율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는 전략은 시장 수익률을 크게 하회했다 (=외국인 수급 확인 후 매수). 외국인이 순매수가 지속되지 않았을 때에 주가가 하락한 결과다. 외국인 순매수 강도 상위 20% 기업들을 따라 매수하는 전략의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0.5%에 그쳤다. 벤치마크 대비 상승 확률도 44%로 50%를 크게 하회했다(그림41,42 참조).

그림 41. 외국인 순매수 비율 확인 후 투자 성과



주1: 외국인순매수 강도 기준 동일가중 포트폴리오(T시점), T+1시점의 1개월 수익률
 주2: 분석 기간은 2010년 이후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2. 외국인 순매수 따라사기 전략은 시장을 크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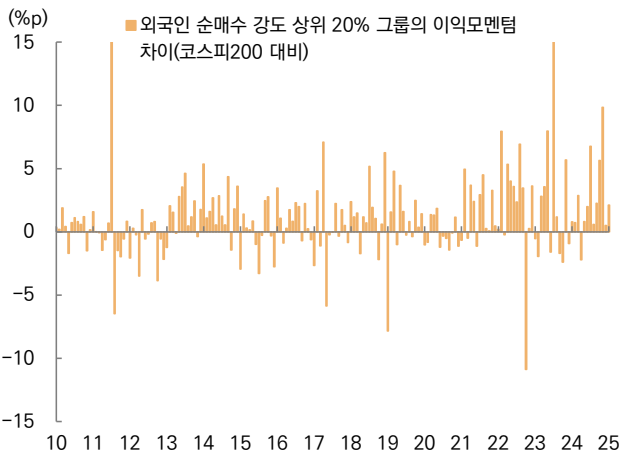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펀더멘탈(이익모멘텀, 밸류에이션)을 함께 고려해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될 확률이 높은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과거 코스피200 내 외국인 수급 강도 상위 20% 그룹의 이익모멘텀은 코스피200 대비 긍정적이었다. 외국인 수급 강도 상위 20% 그룹은 12개월 선행 영업 이익 변화율이 코스피200 대비 평균적으로 +1.1%p 높았다(그림43 참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외국인 순매수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매수하는 전략은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익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 기업들로 한정했을 때에는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그룹의 연평균 수익률은 외국인 순매수 비율이 높은 그룹 대비 각각 +8.2%p 상회했다(그림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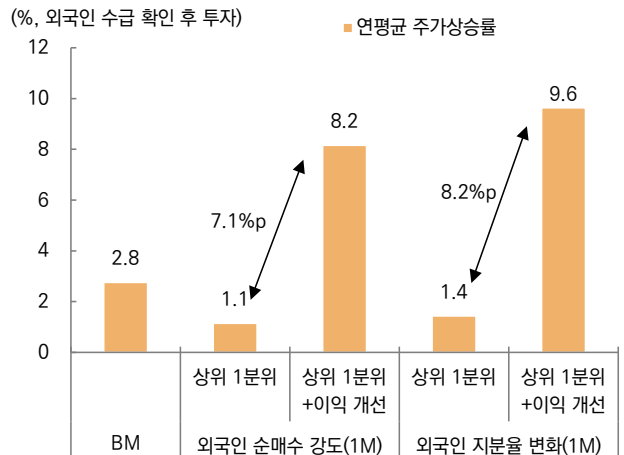
외국인 수급 강도 상위 20% 그룹의 평균 PBR은 벤치마크 PBR의 -20% ~ +40% 범위 내에 있었다(95%, 5% 기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 외국인 수급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지만 밸류에이션이 극단적으로 높은 업종이나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45,46 참조).

그림 43. 외국인 수급 강도 상위 20% 그룹의 이익모멘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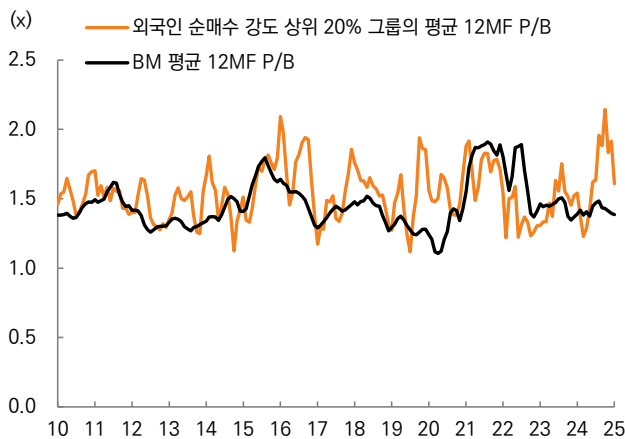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4. 외국인 수급 모멘텀 기업 중 이익개선 여부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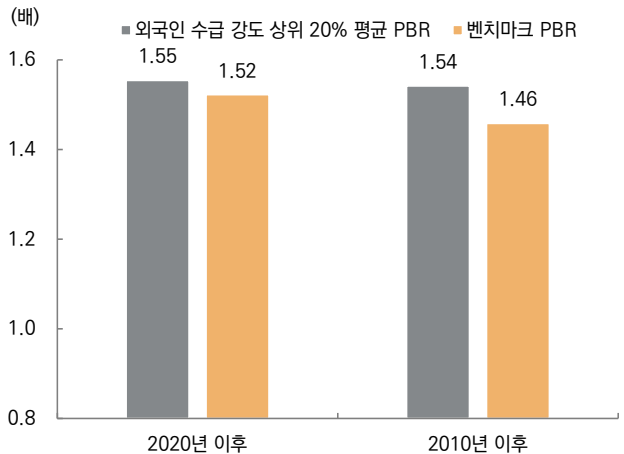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5. 밸류에이션(PBR) 차이는 -20% ~ +40% 수준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6. 외국인 수급 모멘텀 상위 그룹의 P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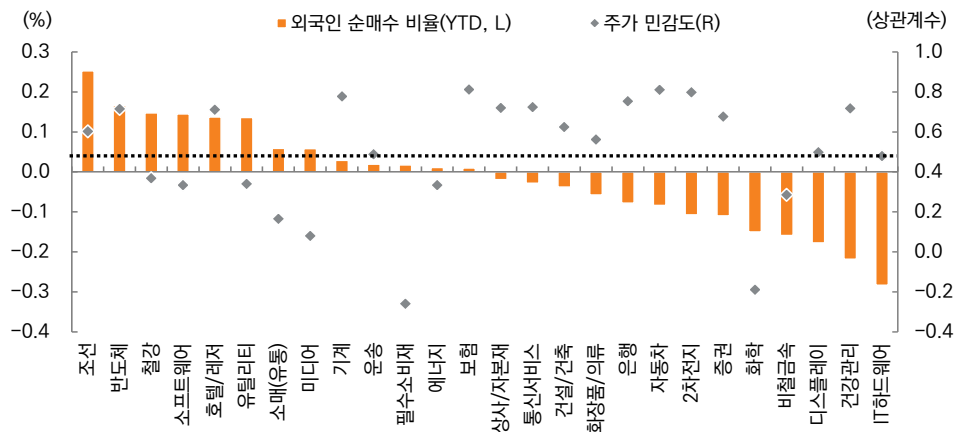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수급모멘텀이 긍정적인 업종 및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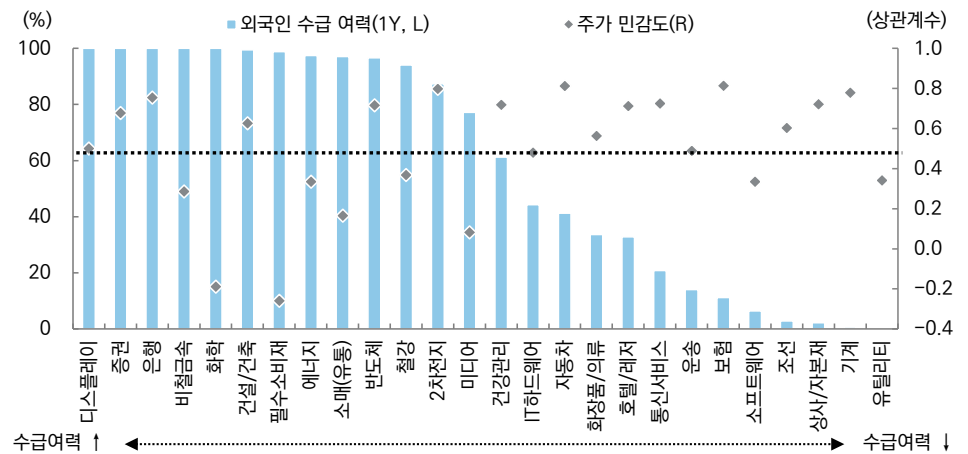
외국인은 연초 이후 조선, 반도체, 철강, 소프트웨어, 호텔/레저, 유틸리티 업종을 순매수했다. 이 중에서 주가 상승률과 외국인 순매수 비율의 상관계수가 높고, 펀더멘탈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조선, 방산, 반도체다. 또한, 반도체는 외국인 수급 여력이 97%로 수급 부담이 적다(수급 여력은 지난 1년간의 누적 순매수 추이에서 현재 누적 순매수 위치로 계산 0~100%, 100%에 가까울수록 수급 여력 ↑).

그림 47. 외국인 수급 강도와 주가 민감도(=상관계수)



주1: 주가 민감도는 12개월 업종 수익률과 외국인 순매수 비율의 상관계수로 계산
 주2: 2025년 1월 22일(수) 종가 기준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8. 외국인 수급 여력과 주가 민감도(=상관계수)



주1: 수급 상대위치는 지난 1년간 누적 순매수 추이에서 (최대-현재)/(최대-최저)로 계산
 주2: 2025년 1월 22일(수) 종가 기준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 중에서 1) 연초 이후 외국인 순매수 비율 상위 20%, 2) 최근 1년 외국인 수급과 주가 상관계수 0.3 이상, 3) 2025년 영업이익 증가율 (+), 4) 12MF PBR 5배 이하 기업을 선정했다(표1 참조).

표 1. 연초 이후 외국인 수급모멘텀이 긍정적인 기업 리스트

(조원, %, 배, 상관계수)

종목코드	종목명	시장	업종명	시가총액	주가 상승률		외국인 순매수비율		영업이익 증가율(YoY)		영업이익 변화율 (2025F)		12MF		외국인 수급 상관계수	
					YTD	3M	YTD	3M	1Q25F	2025F	1M	3M	P/E	P/B	1년	3년
A014620	성광벤드	KQ	기계	0.9	31.2	129.2	4.09	5.83	72.9	30.8	7.0	16.5	14.4	1.4	0.51	0.41
A033500	동성화인텍	KQ	조선	0.6	43.8	93.1	3.00	2.48		33.2	-1.8	-6.3	12.9	2.7	0.75	0.53
A082740	한화엔진	KS	조선	1.9	26.4	46.5	2.62	2.95	12.5	42.0	-3.1	-3.5	24.7	4.4	0.62	0.30
A036930	주성엔지니어링	KQ	반도체	1.6	13.8	24.1	1.42	3.88	250.9	23.3	-1.6	3.0	12.4	2.0	0.57	0.09
A017960	한국카본	KS	조선	0.8	24.5	34.8	1.17	1.11		38.2	-16.8	-31.7	16.5	1.4	0.69	0.32
A000660	SK하이닉스	KS	반도체	164.2	29.7	20.1	1.14	1.12	145.3	43.6	-1.9	-2.5	6.5	1.6	0.88	0.77
A077970	STX엔진	KS	조선	0.6	20.7	12.8	1.14	1.18		15.5	7.3		21.1	2.2	0.32	0.23
A042660	한화오션	KS	조선	16.2	41.6	73.4	1.11	1.00	120.7	237.5	2.1	0.9	39.7	3.4	0.41	0.25
A042670	HD현대인프라코어	KS	기계	1.5	15.5	5.7	0.98	0.23	-17.0	62.1	-1.6	-24.9	7.9	0.7	0.43	0.52
A340570	티앤엘	KQ	건강관리	0.6	15.0	4.5	0.96	-0.19		27.0	0.0	-3.1	10.6	2.7	0.37	0.39
A103590	일진전기	KS	기계	1.6	21.1	32.5	0.93	0.60	32.0	50.7	-0.2	-3.6	19.1	2.8	0.58	0.36
A034020	두산에너빌리티	KS	기계	15.3	36.5	16.0	0.93	2.14	3.3	18.1	-1.6	-19.2	35.7	1.9	0.67	0.60
A000720	현대건설	KS	건설	3.2	12.0	-2.6	0.88	-2.55	-46.1	흑전	-2.9	-5.4	6.2	0.4	0.55	0.06
A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S	상사/자본재	17.7	19.1	0.9	0.85	2.09	575.3	19.0	2.6	14.1	16.6	3.7	0.68	0.02
A192820	코스맥스	KS	화장품/의류	1.9	11.9	15.5	0.64	1.57	8.2	21.6	0.6	0.6	15.4	3.3	0.54	0.24
A000880	한화	KS	상사/자본재	2.3	15.8	11.9	0.63	0.61	125.6	60.9	5.1	8.5	3.2	0.2	0.52	0.47
A023160	태광	KQ	기계	0.6	33.1	81.5	0.63	1.30	6.6	32.8	8.4	1.5	12.3	1.0	0.42	0.06
A003490	대한항공	KS	운송	8.9	6.4	2.1	0.50	1.25	18.8	9.9	5.1	15.9	5.8	0.7	0.58	0.39
A237690	에스티팜	KQ	건강관리	1.8	-0.3	-13.7	0.47	2.91	187.4	70.5	-1.9	-13.1	35.6	3.7	0.48	0.47
A035420	NAVER	KS	소프트웨어	32.3	2.6	19.2	0.47	4.42	20.3	15.1	0.1	4.5	17.5	1.2	0.71	0.47
A271560	오리온	KS	필수소비재	3.9	-3.9	-0.3	0.31	0.16	6.1	7.4	1.1	-0.1	8.8	1.1	0.54	0.55
A035900	JYP Ent.	KQ	미디어	2.6	6.3	44.6	0.29	7.06	-11.2	22.3	2.0	2.8	22.2	4.3	0.49	0.48
A000270	기아	KS	자동차	41.0	2.3	11.4	0.26	0.16	-0.9	1.5	0.7	1.1	3.9	0.7	0.75	0.60
A012330	현대모비스	KS	자동차	23.5	7.0	2.2	0.24	1.01	53.3	17.5	2.6	12.2	5.6	0.5	0.43	0.23
A034230	파라다이스	KS	호텔/레저	0.9	4.1	-3.6	0.23	0.28	-2.9	13.5	-3.3	-4.7	12.1	0.6	0.34	0.51
A035250	강원랜드	KS	호텔/레저	3.6	5.0	1.6	0.23	0.44	10.8	9.4	0.1	2.5	10.8	0.8	0.70	0.50
A462870	시프트업	KS	소프트웨어	3.5	-4.6	0.5	0.23	0.85	7.2	55.0	-3.8	-7.8	18.1	4.8	0.94	0.94
A108320	LX세미콘	KS	디스플레이	1.0	10.4	0.2	0.19	0.34		21.9	1.6	-9.8	6.4	0.8	0.77	0.37
A010620	HD현대미포	KS	조선	5.4	0.6	25.5	0.17	0.16	흑전	240.5	-3.8	0.0	21.2	2.3	0.49	0.36

주: 2025년 1월 22일(수) 종가 기준
 주1: 음영은 2025년 영업이익 변화율 (+)인 기업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